**교제와 나눔**

**39-44호 2022년 10월 30일**

**\*\*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\*\***

**ㆍ****Teestube에 간식이 준비돼 있습니다.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가세요.**

**ᆞ성경 300독 대행진:** 매일 성경 네 장씩 읽어 1년 1독 하세요.

**ㆍ매일성경 11,12월호:** 받아가세요.

**ㆍ프로필사진:** 멀티미디어부에서 프로필 사진을 찍어드립니다(신청-손재호)

**ㆍ제직운영위원회:** 다음 주일 예배 후

**ㆍ귀가:** 김한진-박종희, 신일수, 이미전, 이유하, 손교훈-김성희

**ㆍ생일:** 손하음, 김에스더, 심옥근, 이미전, 김영희, 오경민, 크리스챤 쉬빌라

**\*\* 함께 기도합시다 \*\***

1)은혜롭고 안전한 예배드리게 하소서.

2)모이기에 힘써, 배움과 교제의 기쁨 누리게 하소서.

3)코로나19를 넘어서 온전한 일상을 회복해 가게 하소서.

4)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, 삶 속에 변화를 만들어가게 하소서.

5)공의와 평화의 주여,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소서.

**◆말씀일기 일정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일/삼하24:1-17 | 월/삼하24:18-25 | 화/다니엘1:1-7 | 수/단1:8-21  |
| 목/단2:1-13 | 금/단2:14-23 | 토/단2:24-30 | 일/단2:31-49 |

**◆114 운동-**하루**(1)** 한번**(1)** 말씀일기 & 성경 **(4)**장 통독

**성경 300독 대행진: 205독**

**◈ 예배위원 안내 ◈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**10월 30일** | **11월 6일** | **11월 13일** | **11월 20일** |
| **예배기도** | 김종권 | 박종희 | 손재호 |  |
| **말씀일기** |  |  |  | 정수연 |
| **안내위원** |  예배부 |
| **헌금위원** | 예배부 정수연 | 예배부 우선화 강일구 |



 **“서로 위로하라”**(살전4:18)

주일예배 15:00 Mutterhauskirche

유초등부 15:00 Teestube

청소년부 15:00 Teestube

청년부 성경공부 16시 Teestube

토요기도회: 07:00 각 가정

선교성경아카데미(MBA): 누구든 어디서나

**담임/ 손교훈 목사** Kyo-Hoon Sohn

☏ 02131-5249 186 HP. 0176-5779 1004

**교육/ 김요한 목사** HP. 0176-5574 1290

**교육/** **이동훈 목사** HP. 01525-2367 629

**선교협력/ 이광열 목사** HP. 0157-7388 7498

1983년 5월8일 창립 **뒤셀도르프선교교회**

 **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.de**

 **교회주소Alte-Landstr. 179, 40489** **D****üsseldorf**

인도: 손교훈 목사

**주 일 예 배 (종교개혁주일)**

|  |  |
| --- | --- |
| ※입례송/Eingangslied ………………….... 왕이신 나의 하나님 ….……………………….  | 다함께 |
| ※예배부름/Eingangsgebet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| 인도자 |
| ※찬송/Gemeindelied 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4장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| 다함께 |
| ※신앙고백/Glaubensbekenntnis …….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 | 다함께 |
| 성시교독/Wechselwort ……………...…,….교독문 104번 .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 | 다함께 |
| 찬송/Gemeindelied …………………..………… 585장 ……….…………..…………........... | 다함께 |
| 기도/Gebet ….................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| 김종권 집사 |
| 찬양/Chor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……… 저 장미꽃 위에 이슬……………..…..….…… | 실버찬양단 |
| 성경봉독/Text zur Predigt …….……... 창세기 18:16-19 ..….……..…….…..………. | 인도자 |
| 설교/Predigt ..….....…....................... 복이 되어 흩어지라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| 손교훈 목사 |
| 찬송/Gemeindelied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508장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….. | 다함께 |
| 봉헌/Kollekte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| 다함께 |
| 교제/Bekanntmachung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. | 다함께 |
| ※주기도송/Vaterunser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 | 다함께 |
| ※축도/Segen …..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| 손교훈 목사 |
|  |  |

**※ 표는 일어섭니다.**

**\*\*교회 구좌\*\***

Ev.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.V.

Bank: Stadtsparkasse Düsseldorf

IBAN: DE61 3005 0110 1008 4019 01

**▶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삼하22:1-25 ‘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’◀**

시편18편으로도 알려진 이 다윗의 노래는 내게 죽어도 잊혀지지 않는 노래이다. 특히 2-3절은 내 가슴에 너무도 생생하게 새겨져 있다. 그 때가 1997년 1월 1일. 만 5년 동안 섬기던 울산 평강교회를 12월 말로 사임하고 1월 첫 주일에 대구 삼덕교회로 부임하게 되었다. 아무래도 새로운 임지로 가게 되면 부모님을 직접 찾아 뵙고 인사 드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,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그 새벽 아침에 아내와 두 아이를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을 향해 출발하였다.

눈이 오는 빙판길, 그래도 안전하게 잘 와서 서울 톨게이트를 무사히 통과했다. “이제 다 왔구나” 생각하고 마음을 조금 놓는 순간이었다. 멀쩡히 달리던 차가 눈 속에 감추어진 빙판에 갑자기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서 내 통제를 벗어났다. 1차선을 달리고 있던 차가 2차선 3차선을 휘저으면서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른다.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온 몸이…. 그 순간 옆으로 지나가는 차들이 없었기에 망정이지, 정말이지 아찔한 순간이었다. 미끄러져 돌던 차는 결국 제일 바깥 차선 턱에 걸려 중앙선을 바라보고 멈추어 섰다. 나는 완전 얼음이 되어 핸들을 꼭 잡은 채 떨고 있었다. 내 눈 앞 1, 2, 3차선으로 차들이 질주하고… 세상에, 아이들은 그 와중에도 곤히 자고 있다.

얼마를 그렇게 얼음이 되어 앉아 있었을까?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다. 신년 첫날 첫 시간, 바로 몇 시간 전에 받은 한 해의 말씀, 삼하22:2-3. 이 말씀 받아 보는 순간, 꽤 긴 문장이었음에도 유독 “나를 ‘흉악’(개역성경)에서 구원하셨도다”라는 문구만 눈에 들어 왔었다. 그러면서 “올해 무슨 흉악한 일이 내게 있으려고 그러나?” 생각하며 마음이 썩 좋지를 않았다. “에이 구원 안 하셔도 되니까 흉악한 일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…” 하면서.

믿음 없는 나를 향해, 말씀을 통한 약속을 바로 그 날로 확인시켜 주신 정확한 하나님,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전율했고, 그 떨림은 평생의 울림이 되어 버렸다. 한 말씀이 나를 살렸고, 한 말씀이 계속 나를 살아 있게 했다. 오늘도 나는 교우들과 함께 신년 초마다 그 해의 한 말씀을 받고 1년 내내 묵상을 한다.

나를 ‘흉악에서 구원’하신 하나님, 한 말씀의 위력을 온 몸으로 체험케 하신 하나님, 오늘도 내게 말씀하옵소서. 내 욕심과 교만과 무지로 오염된 말씀이 아니라, 그 말씀 그대로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, 그 말씀 그대로를 받고,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하소서. 말씀의 홍수에 떠밀려 다니지 않게 하시고, 날마다 말씀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올리게 하소서.